

July 16th, 2024

Min Jung | Research Analyst
minjung@prestolabs.io

Summary

- 새로운 IT 기술의 빠른 도입과 높은 사용 사례를 자랑하는 한국은 활발한 가상자산 개인 투자로 인해 "김치 프리미엄"과 "상장 펌프" 등 독특한 현상을 보여준다.
- 한국 가상자산의 역사는 주로 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에 따라 변화해 왔다.
- 그러나 높은 거래량과 규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개발 및 운영 분야의 규제가 불분명하여 빌더들은 한국 시장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tate of the Korean Crypto Market.

RESEARCH PARTNERSHIP

Presto
Researc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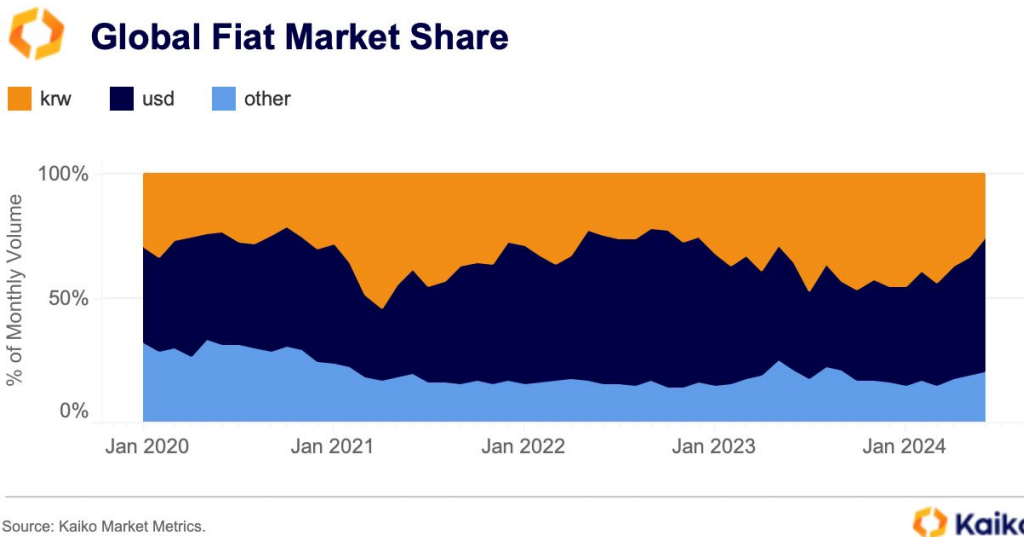
Kaiko
smart data

소개

한국은 광범위한 인터넷 보급과 기술에 정통한 인구 덕분에 기술 강국이자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열정적인 개인 투자자층이 특징인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김치 프리미엄'과 '상장 펌프'와 같은 독특한 시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규제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길 새로운 규제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1) 다양한 규제 발전과 관련하여 한국의 가상자산 역사를 다루고, (2) 앞서 언급한 현상과 새로운 규제를 중심으로 현재 산업의 상태를 살펴봄, (3) 한국의 주요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그림 1: 원화는 전 세계 법정화폐 거래량에서 꾸준히 상위 2위 안에 들고있음.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역사

~2017:

-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듯 한국에서 주류가 아니었다.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는 2013년 코빗이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오픈한 것과 2014년 빗썸이 그 뒤를 이은 것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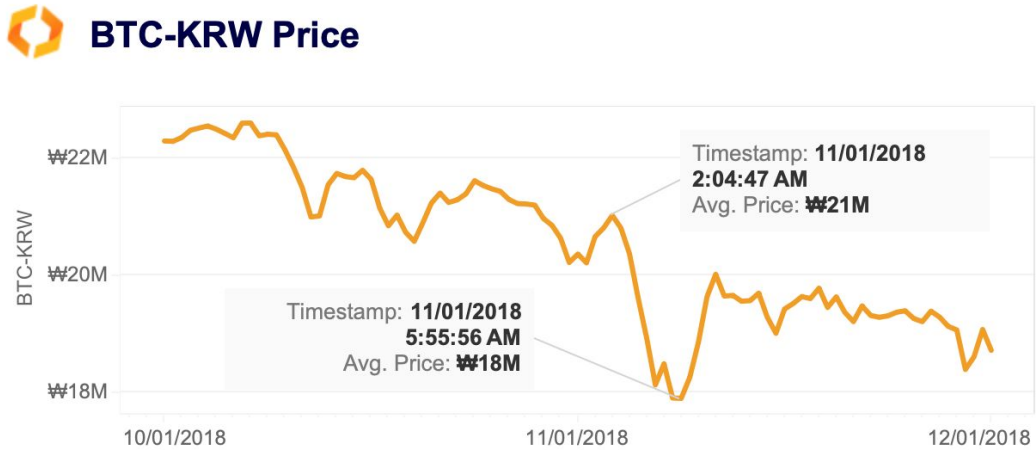
2017:

- 불장 (Bull Market):** 2017년은 가상자산에 대한 한국의 열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였다. 상승장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몰렸고 빗썸은 일일 거래량 기준 세계 1위 거래소로 등극했으며 김치 프리미엄(뒤에서 설명)은 30~40%에 달했다.
- ICO 금지:** 2017년 9월, 한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금융 사기 및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초기 코인 공개(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도 코인리스트와 같은 플랫폼은 한국에서 금지된 상태이다.

2018:

- **“박상기의 난”:**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이 크게 혼란에 빠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그림 2: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발언후 \$BTC 가격 폭락.



Source: Kaiko Asset Prices.



- **실명 거래 시스템:** 2018년 1월 30일,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과 제휴하여 실명 확인 계좌를 제공해야 하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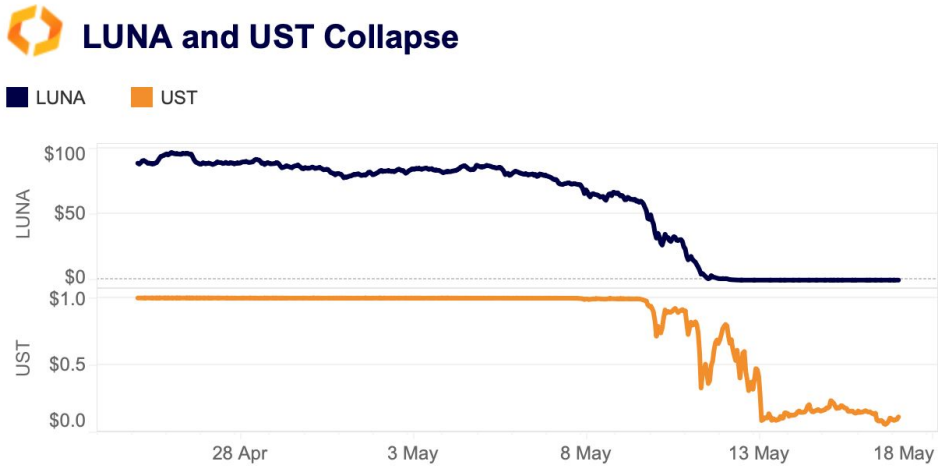
2020/2021:

- **특금법 개정:** 2020년 3월, 국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또는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알기제도(KYC)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 법 시행 이후 63개 거래소 중 29개 거래소만 등록에 성공했다. 이 중 5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후 고팍스)만이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획득해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이 법은 해외 거래소에도 적용되어 바이낸스 등이 한국어 지원과 P2P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재까지도 원화 지원 불가, 한국어 지원 불가, 한국어 직접 마케팅 불가라는 세 가지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2022:

- **테라 루나 붕괴:** 2022년 5월, 테라(LUNA)와 스테이블코인 \$UST의 붕괴로 인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으며, 이 사건은 특히 한국 투자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규제 감독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다. 특히 테라 생태계를 통해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테라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한국 가상자산 업계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그림 3: 테라 생태계의 붕괴.



Source: Kaiko Asset Prices.



- **DAXA:**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회(DAXA)는 주요 한국 거래소들(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이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을 위한 산업 표준을 수립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 **트래블 룰:** FATF 지침에 따라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트래블 룰"을 도입했다.

2023/2024:

- **하루 인베스트/델리오 파산:** 2023년, 두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관리 회사가 폰지 사기 구조로 인해 파산했다. 이 사건은 루나 붕괴 이후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잘못된 관리 및 금융 비리 혐의로 인해 규제 공백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켰다.
- **증권형 토큰 발행(STO) 가이드라인:** 2023년 2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형 토큰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토큰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3년 6월에 통과된 이 법은 가격 조작 및 기타 시장 남용에 대한 처벌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 법안의 첫 번째 단계다.

2024+: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 입법'으로도 불리며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사용자 보호와 부당 거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단계 입법'에서는 토큰 발행 및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운영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간단한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는 데 20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번째 단계가 구체화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가상자산과세: 한국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항상 선거 시즌의 주요 이슈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반복적으로 연기되어 왔으며, 이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연간 250만 원(약 1,900달러)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림 4: 나라별 가상자산 과세.

Country	Tax	Note
Japan	15~55%	Cryptocurrency profits are considered "miscellaneous income" and is taxed according to your progressive income bracket plus local tax, irrespective of holding period.
South Korea	20%	A flat 20% capital gains tax is set to be implemented in 2025 for annual gains exceeding KRW 2.5 million (approximately USD 1,900). South Korea does not differentiate between short-term and long-term gains for cryptocurrencies
Singapore	0%	Gains are only taxed if they are considered revenue in nature (e.g., frequent trading).
Hong Kong	0%	Profits from cryptocurrency trading are only taxed if they are considered part of a business activity. In such cases, they are subject to profits tax at a rate of 16.5%.
US	10~37%	Short-term capital gains (<1yr) are taxed as ordinary income with rates ranging from 10% to 37%. Long-term capital gains are taxed at 0%, 15%, or 20%,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taxable income.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한국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은 모든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므로, 전 세계적으로 상장 과정과 규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 현재 한국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상장하거나 상장 폐지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기존의 유일한 지침은 2023년 3월 DAXA, 즉 한국의 주요 5개 거래소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제시한 초기 프레임워크다. 그러나 이 지침은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DAXA는 규제 당국의 감독 하에 지침을 개편하여 더 세분화된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 규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고객 예치금 보호
- 보관 책임 강화
- 의심스러운 거래 감시
- 내부자 거래

상장/상장 폐지 가이드라인

DAXA는 FSC/FSS의 감독 하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모범 사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지침에는 상장 및 상장 폐지 기준이 포함되어 현재 업계의 피드백을 받고 있는 과정이다. 상장 심사 기준은 네 가지 주요 영역에서 아홉개의 요구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분기별로 검토할 예정이다:

1. 발행자의 신뢰성
 -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발행자 및 운영자의 주요 지갑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 보호 조치
 - 발행자 및 운영자가 준비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한 설명 자료(백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 온체인 거래 모니터링 도구(블록 탐색기)가 없는 경우
3. 기술적 보안
 - 가상자산, 지갑 또는 분산 원장에서 설명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은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분산 원장에 내재된 토큰 스마트 계약의 소스 코드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이벤트 기능의 설정이 부적절한 경우
4. 규제 준수
 - 자체 발행 코인, 다크 코인 및 기타 불법으로 간주되는 가상자산
 - 불법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규정을 위반하는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경우

위의 8가지 항목 중 하나와 관련된 가상자산은 비준수로 간주되며 상장될 수 없다. 또한, 금융 당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아홉 번째 정성적 검토 기준을 도입했다:

- 발행, 운영 및 개발과 관련된 기관의 능력, 사회적 신뢰도 및 과거 사업 이력
-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요 정보의 공개
- 총 발행 및 유통 계획, 사업 계획 변경 및 이러한 변경의 투명성과 타당성
- 토큰 스마트 계약의 중요한 이벤트 관련 기능에 대한 접근 제어 설정의 적절성

이러한 발전하는 지침은 한국에서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구조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현재의 모호성을 해결하고 시장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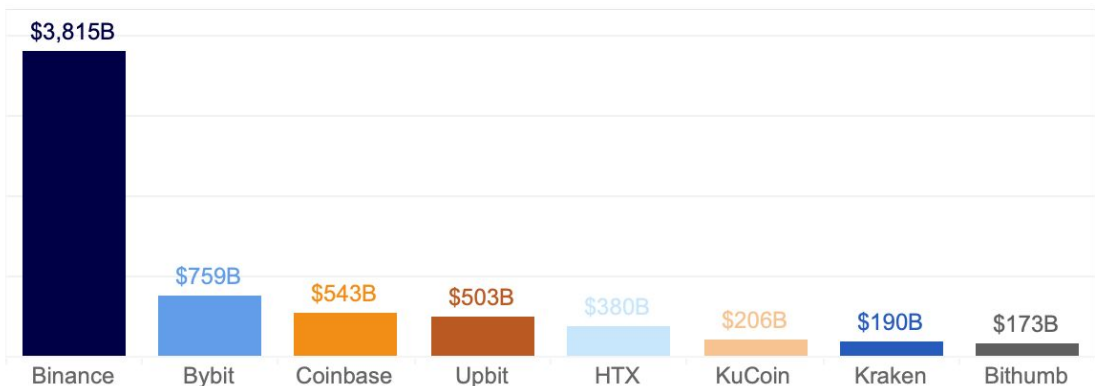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현황

개인 투자자 열풍

한국에서의 개인 투자자 열풍은 빠른 인터넷 속도로 인한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 위험을 즐기는 투자 문화,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는 단일 민족 사회와 같은 문화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한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한국의 거래소는 프로젝트들이 상장되기를 원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다. 현재도 업비트는 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항상 상위 다섯 거래소에 포함되며, 종종 바이낸스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다. 이는 한국 거래소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HTX와 같은 글로벌 거래소와 달리 사용자가 한국 거주자로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놀라운 일이다.

그림 5: 업비트는 평균 거래량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Trade Volume By Exchange Cummulative volume in 2024



Source: Kaiko Market Metrics.



최근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량은 코스닥 및 코스피의 거래량을 넘어섰다. 이러한 거래량 급증은 가상자산이 국가의 금융 환경에 큰 비중을 이미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엄청난 가상자산 관심은 김치 프리미엄과 상장 펌핑과 같은 흥미로운 시장 현상을 초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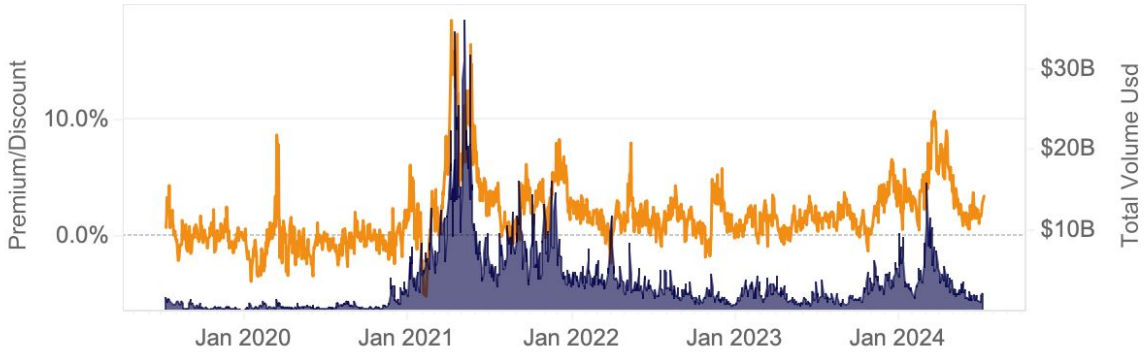
김치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 거래소와 글로벌 거래소 간의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차익 거래를 방지하는 규제 문제로 인해 일반적으로 2-3%의 프리미엄이 존재하며, 이는 한국 거래소의 가상자산들이 다른 나라의 거래소들의 가상자산들 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강세장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지난 4월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약 14%까지 급등했다.

그림 6: 거래량이 급증한 시기에 김치 프리미엄 급증.

BTC Kimchi Premium/Discount vs. Trade Volumes

Premium/Discount Total Volume Usd



Source: Kaiko Market Metrics.



상장 펌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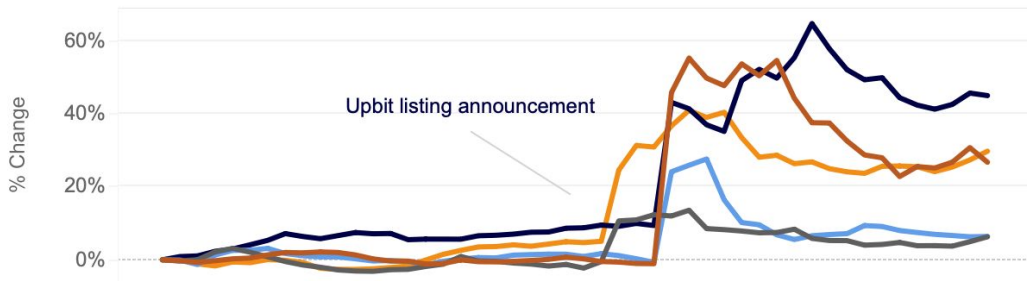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은 업비트나 빗썸이 프로젝트 상장을 발표할 때 발생하는 “상장 펌핑”이다. 시가 총액, 유동성, 무기한 선물 유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한국 거래소에 새로 상장된 가상자산의 가격은 발표와 함께 즉시 급등한다.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당연히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 상승은 지속 가능한 추세가 아닌 일회성 이벤트로 여겨진다.

그림 7: 업비트 상장 발표 후 펌핑.

Asset Prices Before and After Listing on Upbit

% change in hourly prices on listing day

AKT ALT BIGTIME MNT PYTH



Source: Kaiko Asset Prices.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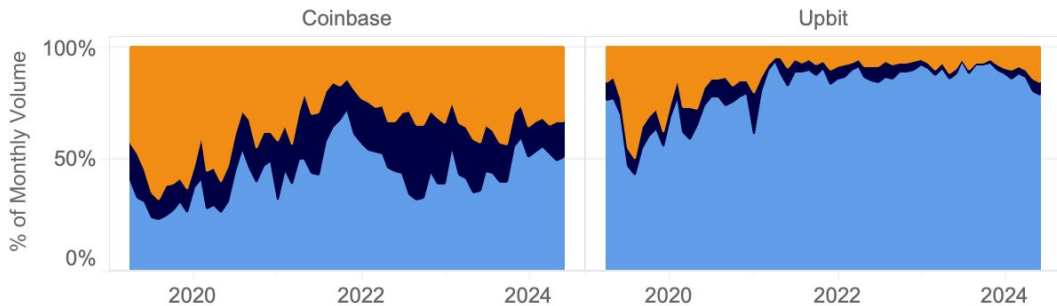
거래소 규제 및 투자자 보호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Web3 운영 및 개발자들을 위한 환경은 크게 다르다. 현재 상위 100위 시가 총액 내에 주요한 한국 프로젝트가 없다는 것은 한국의 가상자산의 인기를 고려해봤을 때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의 태도와 Web3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으로 여겨진다.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이 인기가 있지만,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도박의 한 형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상장 및 상장 폐지 펄핑과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시장 행동은 이러한 인식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시장의 초점은 Web3 기본에 기반한 장기 투자보다는 무조건적인 수익률을 중심을 한 단기 투기만이 남아 있다. 더불어, 2022년 5월 LUNA 사태는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을 악화시켜, 한국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은 언론의 집중 질타를 받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정치인들의 표적이 되어, 진정한 열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다.

그림 8: 한국인들은 메이저 가상자산보다 알트코인을 선호.

Market Share of Volume

 btc  eth  other



Source: Kaiko Market Metrics.



규제의 불명확성 역시 이러한 현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규제는 주로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산업 혁신 및 육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요건은 거래소, 지갑, 그리고 수탁업체에만 적용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초기 단계는 주로 거래소의 운영 측면을 다루고 있다. 또한, P2E 게임에 대한 한국의 금지 조치로 인해 한국의 유명한 Web2 게임 스튜디오가 한국에서 운영되지만, 결국 게임 자체는 한국 밖 시장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규제의 모호성과 지연은 많은 한국 개발자들이 싱가포르와 같은 더 유리한 지역으로 이전하게 만들었으며, 한국의 뛰어난 기술 능력에도 불구하고 업계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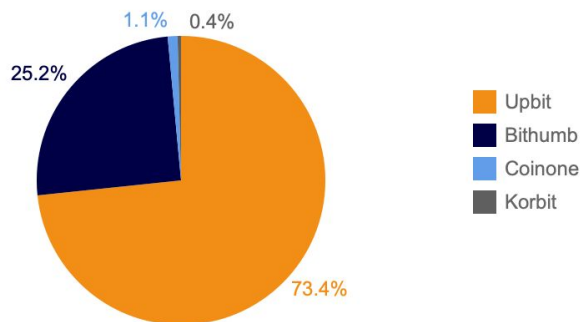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참여자들

거래소

가상자산에 대한 선물 거래는 명확히 규제되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의 제한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다. 따라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다섯 개의 주요 현물 거래소가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업비트와 빗썸이 총 거래량의 거의 96%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림 9: 오늘날 한국 거래소 시장 점유율.

Korean Exchanges Market Share of Volume in 2024



Source: Kaiko Market Metr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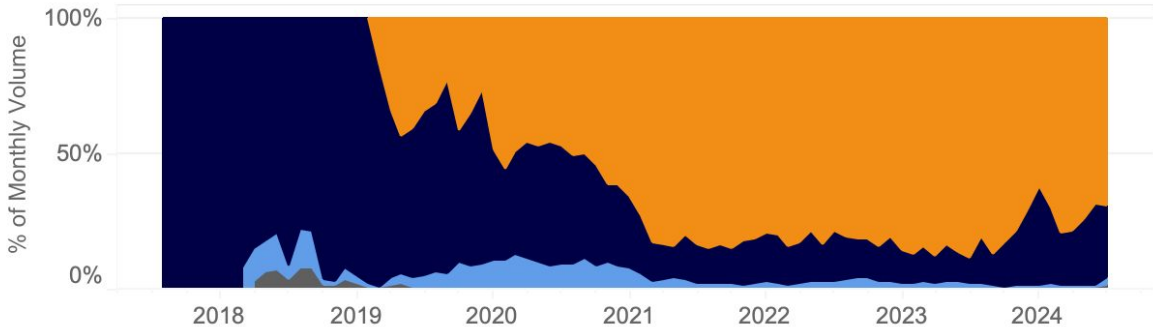


- 업비트:** 두나무가 소유한 업비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의 #1 가상자산 거래소다. 두나무는 또한 Luniverse(Web3 제품), 주식 거래 플랫폼 및 중고 시계 플랫폼과 같은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장외시장에서 약 25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는 두나무는 2023년에 27억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다. 오늘날 업비트는 KRW/BTC/USDT 페어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거래량은 KRW 시장에서 발생한다.
- 빗썸:** 빗썸의 불분명한 지배구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외시장에서 약 2억 89백만 달러로 평가받는 빗썸은 2025년 IPO 계획을 발표했다. 빗썸은 2020년까지 거래소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했으나 2020년 이후 업비트에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격적인 수수료 정책으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였으며, 거래소에서의 '상장 펌핑'으로 자주 증명되듯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10: 빗썸이 2020년까지 점유율 1위 자리를 차지했음.

Korean Exchanges Market Share

 Upbit  Bithumb  Coinone  Korbit



Source: Kaiko Market Metrics.



- **코인원:** 시장 점유율 3.39%를 차지하는 코인원은 한국에서 최초로 이더리움을 상장한 거래소다.
- **고팍스:** 시장 점유율 0.33%를 차지하는 고팍스는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72.26%의 지분을 인수했다. 그러나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 과정은 여전히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 **코빗:** 시장 점유율 0.25%를 차지하는 코빗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상자산 거래소다.

프로젝트

i) 카이아(Kaia)

카이아는 카카오의 클레이튼과 네이버의 라인의 핀시아가 합병하여 탄생한 새로운 레이어-1 프로젝트다. 이 합병은 두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합 시스템으로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리고"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이름을 따와 연결을 상징한다. 올해 말까지 출시될 예정인 카이아 프로젝트는 최대 규모의 "한국" 레이어-1 블록체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M&A는 가상자산 산업에서 몇 안 되는 M&A 사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1. 본인과 카이아 소개를 해주세요.

제 이름은 존 조(John Cho)이고, 현재 클레이튼 재단의 마케팅 부사장으로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총괄하고 주요 지역에서의 채널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이아는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체인 합병 결과로 탄생하는 새로운 레이어-1 슈퍼체인입니다.

카카오(한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슈퍼앱)와 라인(아시아 전역에서 1억 7천 8백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주요 메신저 플랫폼)이 각각 설립한 3세대 블록체인 프로젝트로서, 두 생태계의 합병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중 하나를 창출하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핀시아의 앱 개발 전문성과 클레이튼의 뛰어난 기술력을 결합하여, 카이아는 Web3의 진정한 주류 채택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주요 사용자 기반, 유동성, 인재에 접근할 수 있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2. 한국의 Web3 운영에 대한 현재 규제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한국의 규제 환경은 Web3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혁신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 현물 거래량을 자랑하며, 이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대중의 엄청난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입법자들은 지역 팀과 개발자들이 요청하는 명확성과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여 많은 팀들이 명확한 지침이 있는 지역으로 떠나는 '인재 유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병목 현상은 규제 당국이 Web3 기술과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실제 개발자 및 팀과의 대화가 부족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혁신과 실질적인 성장을 촉진하려면 개발자들이 명확성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의 지침은 난해하고 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산업 내 우리에게 규제의 명확성과 구체성은 더 명확한 전략과 목표를 수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3. 앞으로 카이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카이아 메인넷의 공식 출시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기술 업그레이드와 네이티브 스테이킹 위임 및 우선 수수료 메커니즘과 같은 추가 기능 외에도, 카이아 포털을 통해 생태계 전반에 걸친 인센티브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카이아 포털은 카이아 생태계의 서비스 검색 및 사용자 프론트엔드를 제공하는 독점 서비스로, 사용자가 독점 수익을 활용하고 온체인 미션에 참여함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이아 포털의 목표는 사용자 수준의 기여를 장려하여 성장을 촉진하고 유동성을 부트스트랩하는 것입니다. 이 포털은 새로운 카이아 메인넷과 함께 출시될 예정입니다.

ii) 디랩스(Delabs)

한국은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크래프톤과 같은 유명 게임사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며 Web2 게임 분야를 선도해 왔습니다. 따라서 위메이드, 넥슨 등 주요 게임 스튜디오의 인력 또는 스튜디오 자체가 Web3 영역으로 이동하는 등 P2E(Play-to-Earn)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 게임 스튜디오이자 4:33게임즈의 자회사인 디랩스 게임즈도 이러한 추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넥슨의 전 대표였던 권준모 대표가 설립한 디랩스 게임즈는 최근 Web3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본인과 디랩스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디랩스 게임즈의 마케팅 디렉터 김현명입니다.

한국의 게임 스튜디오이자 유명한 4:33 Games의 자회사인 디랩스 게임즈는 13년 이상 모바일 게임 개발의 선두주자로서 국내 및 전 세계에서 블록버스터 타이틀을 제작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한국 시장에 집중했던 4:33게임즈는 이후 전 세계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제 디랩스 게임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게임의 다음 단계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디랩스 게임즈는 캐주얼 레이싱 게임 럼블 레이싱 스타, 스페이스 프론티어, Web3 캐릭터 수집형 RPG 메타볼트 등 세 가지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해왔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첫 번째 레이싱 게임인 럼블 레이싱 스타를 출시하여 출시 5일 만에 일일 활성 사용자 수 1만 명을 달성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 한국이 가상자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데에는 몇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주거비 등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 특히 'N포 세대'가 재정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위험 투자로 몰리면서 Web3이 매력적인 옵션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가상자산 구매력을 자랑하며, 업비트는 글로벌 거래량 1위의 주요 거래소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클레이튼과 위메이드와 같은 성공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Web3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한국의 P2E(Play-to-Earn) 게임에 대한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신중한 금융위원회(FSC) 규정은 P2E 게임, 대체 불가능한 토큰, 가상자산을 제한하여 잠재적으로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NFT 과세와 가상자산 분류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P2E 서비스에 대한 안전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부처 간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컨트롤 타워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진화하는 기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4. 앞으로 디랩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디랩스 게임즈는 핵심 콘셉트인 “플레이어블 레이어”를 바탕으로 TGE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생태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블 레이어의 핵심 사용자 경험을 선보이기 위해 레이디버그의 여정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다양한 미션을 완료하고, 온체인 자산을 수집하고, 경쟁 리더보드에 올라 포인트를 모으고 부스트할 수 있는 포인트 기반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디랩스 게임즈는 접근성을 높은 하드코어 AAA 게임부터 캐주얼 게임까지 다양한 게임을 텔레그램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결론

한국의 가상자산 환경은 강력한 개인 투자와 규제 도전이 혼재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매우 능숙한 인구를 자랑하지만, 유의미한 토종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부족은 지속적인 규제 및 부정적인 대중 인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을 의미하며,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고 명확한 운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기술적 역량과 시장 열정을 진정으로 활용하려면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적인 대중 인식을 극복하며, 장기적인 Web3 투자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장려하는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가 절실하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은 한국이 변화하는 가상자산 환경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About Presto

Presto is a Singapore-based algorithmic trading and financial services firm founded in 2014. Presto focuses on delivering exceptional value for clients through rigorous research-driven approach to investment and trade execution. With more than a 100 million trade executions in a day, Presto is a leading financial services firm in both digital assets and traditional finance markets.

Find out more at <https://www.prestolabs.io>.
Follow Presto for more content: [X](#), [Telegram](#), [LinkedIn](#)

About Kaiko

Founded in 2014, Kaiko is the leading source of cryptocurrency market data, analytics, indices, and research, providing businesses with industrial-grade and regulatory-compliant data. For each enterprise client, Kaiko builds custom data plans designed for use cases across the investment life-cycle.

Find out more at <https://www.kaiko.com/>
Follow Kaiko for more content: [X](#), [LinkedIn](#)

Authors

Min Jung, Research Analyst : [X](#), [Telegram](#), [LinkedIn](#)

Required Disclosures

Any expression of opinion (which may b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is personal to the author and the author makes no guarantee of any sort regarding accuracy or completeness of any information or analysis supplied. The views and opinions expressed herein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Presto Labs or its affiliates. This material by itself, is not and should not be construed as an offer or a solicitation to deal in any investment product or to enter into any legal relations. This material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only intended for sophisticated investors, and is not intended to provide accounting, legal, or tax advice, or investment recommendations, or an official statement of Presto Labs or its affiliates. Presto Labs, its affiliates and its employees make no representation and assume no liability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provided. Presto Labs, its affiliates and its employees also do not warrant that such information and publications are accurate, up to date or applicable to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case. Certain statements in this document provide predictions and there is no guarantee that such predictions are currently accurate or will ultimately be realized. Prior results that are presented here are not guaranteed and prior results do not guarantee future performance. Recipients should consult their advisors before making any investment decision. Presto Labs or its affiliates may have financial interests in, or relationships with, some of the assets, entities and/or publications discussed or otherwise referenced in the materials. Certain links that may be provided in the materials are provided for convenience and do not imply Presto Labs' endorsement, or approval of any third-party websites or their content. Any use, review, retransmission, distribution, or reproduction of these materials, in whole or in part, is strictly prohibited in any form without the express written approval of Presto Labs. Presto Research and related logos are trademarks of Presto Labs, or its affiliates.